

## 2 OECD, 연구 평가 개혁을 위한 공통 원칙 제시

→ OECD는 기존의 양적·출판 중심의 연구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평가 개혁을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정리한 보고서\*를 발표('26.4)

\* New expectations and demands from science: Rethinking research assessment frameworks

● (개요) 연구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국가·기관·개인 수준에서 정리하고,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, 연구 평가 개혁 원칙들을 제시

- 연구 평가가 과학연구의 우선순위와 방향,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, 과학계에 대한 변화하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

● (연구평가 정의 및 생태계 분석) 연구 평가에 대해 정의하고, 국가·기관·개인 수준에서 '누가, 무엇을, 왜 평가하는지'를 분석해 정리

- 연구 평가는 연구의 기본 자원 및 정보, 프로세스, 결과물,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·평가·검토하는 과정으로, 연구비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행

- 연구 평가는 국가·기관·개인 수준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며, 연구 우선순위 설정, 자원 배분, 연구자 경력 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

※ 연구 평가 수준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평가 대상에 따라 구분

### 〈 연구평가 수행 수준에 따른 연구평가 생태계 분석 〉

연구평가의 수준 (평가 대상)	수행 주체	평가 내용	평가 이유
국가 (국가 연구시스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 부처</li> <li>통계·과학기술정책 기관 (일본의 NISTEP 등)</li> <li>국제기구(OECD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적 연구 성과</li> <li>연구 정책·프로그램</li> <li>연구 전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&amp;D 성과 벤치마크</li> <li>펀딩(연구비) 배분</li> <li>연구 정책 효과 측정</li> <li>R&amp;D 전략 (재)수립</li> </ul>
기관 (대학, 연구기관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연구 위원회·재단</li> <li>연구비 지원 기관</li> <li>대학 행정실</li> <li>민간 회사</li> <li>출판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등교육기관 및 대학</li> <li>연구소</li> <li>실험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원(블록펀딩 등) 배분</li> <li>기관 성과 벤치마크(대학 랭킹 등)</li> <li>기관 전략 (재)수립</li> </ul>
개인 (연구자, 연구그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기관 및 대학</li> <li>국가 연구 위원회·재단</li> <li>연구비 지원 기관</li> <li>편집자</li> <li>출판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자</li> <li>연구 프로젝트</li> <li>논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용, 승진, 종신 재직권 결정</li> <li>연구비 지원 대상 선정</li> <li>출판할 논문 선별</li> </ul>



- **(평가 개혁 필요성)** 정량 지표 중심인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, 과학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강조
  - 지난 10여 년간 양적·출판 중심 평가로 인해 지속적인 논문 게재 압력 (publish or perish), 윤리 및 연구 무결성의 훼손, 연구 시스템 내 다양성·혁신 잠재력 축소 등이 나타나며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게 고조
  - 이와 동시에 과학에 대한 사회적·정책적 기대는 사회문제 해결, 사회적 영향력, 초학제·개방·협력 연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나, 기존 프레임워크로는 이러한 기여를 제대로 포착하거나 보상하지 못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확대
  -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과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량화가 어려워 적절히 평가되지 못한 협력, 포용, 정책 참여, 개방성, 독창성, 위험 감수 등과 같은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
- **(연구평가 개혁 원칙)** 다수의 연구 평가 개혁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의 원칙을 도출해 제시
  - 여러 국가들에서 연구 평가 개혁 이니셔티브\*가 등장하고 있는데, 공통적으로 연구의 품질, 투명성, 자율성, 다양한 기여에 대한 인정 등을 중시

\* 중국의 계량서지학적 지표에 대한 과잉 의존 억제 정책, 폴란드·프랑스의 제출 인정 논문 수 상한제, 네덜란드의 연구 평가 다각화 프로그램(Room for everyone's talent) 등

〈 연구평가 개혁의 공통 원칙 〉

구분	주요 내용
자율성 존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및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</li> <li>• 필요 시 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 기관과 공동으로 설계·해석</li> </ul>
평가 기준의 적합성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 대상 기관의 가치·사명·기능에 맞는 지표 선별</li> <li>• 평가 기준은 다양한 학문 분야, 연구 유형, 경력 단계에 맞게 조정</li> </ul>
연구 품질 강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 기준은 단순히 논문 게재 횟수나 저널의 명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독창성, 연구 수행의 전문성 및 엄격성 등 연구 품질을 우선시</li> </ul>
연구 윤리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 및 평가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윤리 및 무결성 기준 준수</li> <li>• 지표의 조작 및 무책임한 사용을 지양하고, 연구 윤리와 관련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명확히 규정</li> </ul>
다양한 연구 접근방식 및 관련 활동 존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학술적 주체와의 협력, 사회 참여, 지역사회 기반 연구, 신진 연구자 교육 및 멘토링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 관행과 활동 인정</li> </ul>
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영향력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논문, 데이터세트, 소프트웨어, 방법론, 모델, 알고리즘, 메타 분석, 기술적·사회적 혁신 및 정책 결정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연구 결과 인정</li> </ul>
오픈 사이언스 장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법론, 데이터 및 연구 결과물의 공개적인 공유를 촉진·장려</li> </ul>
형평성·다양성·포용성 실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평가 관행에서 소수 공동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, 평가에서 불공정한 대우가 이뤄지거나 편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차단</li> </ul>
적절한 지표 사용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든 지표에 대해 그 한계를 이해하면서 책임감 있고 비판적으로 사용</li> </ul>
양적·질적 지표의 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측정 방법 고려</li> </ul>
투명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명하고 명확하며 검증이 가능한 연구평가 기준·도구·절차를 운용</li> </ul>
평가 부담 최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평가는 필요 시에만 수행하고, 평가 수행 주체와 평가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</li> </ul>

- **(결론 및 과제)** 현재의 연구 평가 시스템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으면서, 미래 연구 평가 설계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
  - 현행 연구 평가 시스템은 과학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, 일부는 오히려 바람직한 연구 문화를 훼손
  - 연구자와 기관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와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구현은 제한적
  -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정량 지표를 버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행동과 선택을 장려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재정립하는 데에 초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
  - 최근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평가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, 이러한 원칙들은 미래 평가 개혁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
  - 미래 연구 평가 시스템을 위해서는 ▲연구 평가가 부응하고자 하는 기대·우선순위 ▲이러한 기대·우선순위가 연구 시스템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 ▲신뢰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워크의 원칙·구현 방법·견인 요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

출처 : OECD (2026.4.29.)

[https://www.oecd.org/content/dam/oecd/en/publications/reports/2026/04/new-expectations-and-demands-from-science\\_6ef0c59c/0c685800-en.pdf](https://www.oecd.org/content/dam/oecd/en/publications/reports/2026/04/new-expectations-and-demands-from-science_6ef0c59c/0c685800-en.pdf)